

“우리시대 아버지들의 깊은 속울음 담았죠”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원로 탤런트 김호영·홍순창

55년 지기 감초연기 대가들

석달 전부터 나주서 연습

술상 회포 풀며 전라도 예찬도

극단 ‘예인방’ 11일 나주서 공연

“흥매야 니 알제, 내 누군지 알제? 니를 심을 때 내 팔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내 손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봤제? 전쟁 통에서도 살아남은 내 목숨이 얼마나 질긴지도 너 알제? 그러 내 안 죽는다. 고향에도 가보고 큰놈 사랑되는 것도 보고 작은놈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보고...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겠어. 그제? 내 아작은 아니제?”

지난 5일 오후 8시, 나주시 대호동 성북동건강증진센터 2층에서는 죽음을 앞둔 한 노년의 독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주 극단 예인방의 연극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이하 흥매와)’ 연습 풍경이다.

차범석 회곽상 수상작으로 서울 초연 당시 신구와 손숙이 출연, 많은 인기를 끌었던 ‘흥매와’의 나주 공연에는 연극무대와 TV를 오가며 활약중인 배우 김호영(73), 홍순창(72)씨가 연기자로, 이승호(72)씨가 연출로 참여해 화제다.

‘흥매와’는 ‘간암 말기의 아버지가 고통을 받으며 곳을 헤매라고 했다’는 작가 김광택의 자전적 이야기를 각색한 작품으로, 간암 판정을 받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돌보는 어머니가 등장한다. 임종을 앞둔 병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마당을 걷는 무명 연극인인 둘째 아들 동하는 내내 살갑지 못했던 부정과 화해한다.

이날 연습실에서 배우 김호영, 홍순창씨를 만났다. 김호영씨는 1974년 MBC 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내조의 여왕’ 등 수많은 작품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홍순창씨는 ‘거침없이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 교장선생님 역할로 출연해 감초 연기로 인기를 모았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어요. 이번 작품연습을 위해 3개월 전부터 나주에 내려와 있죠. 숙소에서 지내는데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전라도가 참 사람도 좋고 물도 좋고 음식도 아주 좋습니다.”(김호영)

김씨는 “이번에 맡은 역할은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 아버지”라며 “40년 넘게 고단한 노동을 해 두 아들을 키워냈지만 어느 날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서서히 죽어가는 역할이다”고 말했다.

이웃집 정씨 역할을 맡은 홍순창씨는 “지난 10월부터 내려와서 연습실에서 불박이 마냥 연습하고 있다”며 “보통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연습을 하는데 힘들기도 하지만 연기는 평생 해온 일이라 즐겁게 연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가 지내기에 아주 좋아요. 오죽하면 서울에 있는 가족한테 저를 보고 싶으면 나주로 직접 내려 오라고 말했겠어요. 함께 연습하는 배우들도 다들 열심히 해서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절순이



지난 5일 나주에 위치한 한 연습실에서 배우 김호영씨와 홍순창씨가 익살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넘은 우리 김호영씨와 이승호씨는 벌써 알고 지낸 지 반평생이 넘었죠. 김호영씨와는 55년 지기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연습이 끝나면 술 한 잔씩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홍씨는 이웃집에 사는 정씨에 대해 “정씨는 정감 어린 동네 노인네로 시골 동네에 꼭 한 명씩 있는 그런 사람이다”며 “자칫하면 무거워질 수 있는 연극의 분위기를 살리고 관객들에게 재미를 주는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를 주제로 했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연극이 어머니의 힘을 보여 주는데 반해 이 작품은 아버지의 애환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꼭 엄마,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와서 보기를 바랍니다.”(홍순창)

“사실 우리 아버지들은 사회생활 한다고 밖에서 일하니까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사라져요. 자식들 하고도 단절되죠. 이 작품은 가족간에 대화단절과 소통부족을 꼬집고 가족 구성원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김호영)

“맞습니다.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이 덜했던 아버지의 깊은 속 울음을 담았어요. 사회 안팎에서 그늘에 가려졌던 우리네 아버지의 삶을 그린 작품이죠. 많은 사람이 연극을 통해 가족간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홍순창)

어머니역에는 전남연극제 연기상 13회에 빛나는 임은희씨, 둘째아들역은 광주 중견연극인 이현기씨, 며느리역은 젊은 연기자 박진영씨가 열연한다. 오는 11일 오후 7시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KRC 아트홀. 문의 1588-6057.

/나주=글 사진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희망의 노래 전하러 어디든 갑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광주공연 그라시아스합창단 최혜미·박진영씨



최혜미(왼쪽)씨와 박진영씨.

“전국 방방곡곡 저 멀리 땅끝까지 찾아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의 불안정한 마음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전달할 것입니다.”(최혜미)

지난 5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그라시아스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광주 공연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수석 솔리스트 최혜미씨와 박진영씨를 만났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전세계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2000년 창단했다.

10년 동안 이어온 합창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방황하는 남미 청소년들, 상처받은 아프리카 청소년들, 범죄의 유혹에 빠진 아이티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

광주 출신인 최씨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고 단원들 모두가 솔리스트적인 역량이 있어 독창회를 하기도 한다”며 “해외 유명음악가를 초청해 순회공연을 하는 스바보드나, 자선콘서트 등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 공연하는 것도 힘들지만 11월~12월 한국에서 하는 공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공연이 매일 이어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휴식시간도 충분치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지려고 할 때마다 공연에서 받았던 관객들의 에너지가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수석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최씨는 2009년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의 첫 독창회 이후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하이든홀, 뉴욕 메디슨가든 등 전 세계 50여 개국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을 선보였다.

목포 출신인 박 씨는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메디슨 스퀘어가든 등 국내외 무대에서 솔리스트로 서며 ‘영혼의 메신저’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박 씨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은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노래한다”며 “마음이 담긴 노래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말했다.

박 씨는 또 “그라시아스는 일반적인 클래식 공연뿐 아니라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콘서트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며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음악 활동을 통해 가난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예술이 어우러진 광주세계수영대회 어때요?

소나무 겨울호 발행

(사)광주예술인회가 발행하는 ‘소나무’ 겨울호가 나왔다.

이번 호 특징은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다. 한희원 작가가 체육 뿐 아니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로의 기대를 담은 글을 실었으며 윤정현 광주시장, 조영택 수영대회 조직위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 개최를 향한 준비



과정 등을 살펴봤다.

또 새로 취임한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만나 지역 문화를 견인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는 앞으로의 포부와 사업계획 등을 들었다.

손광은 시인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간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에 대해 소개했으며 광주 5개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다.

그밖에 향토사학자 김정호씨가 연재하는 ‘잃어버린 광주문화유산’은 읍내에 버금갔던 ‘경향촌역’을 살펴봤으며 광주여성재단이 진행한 ‘페미니스트의 물감’전 소식도 실었다.

또 조선대학교 미술과를 만든 신사실과 백영수 화백의 삶과 작품 세계 등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8-3456. /김미은기자 mekim@

기독교영화 전문사이트

CBSCINEMA.COM

OPEN

런칭기념 이벤트! 하나, 지금 회원가입하면 영화무료이용권 1매를 드립니다. / 둘, 3명 이상의 추천인으로 등록된 총 100분께 아메리카노 2잔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이용방법 홈페이지접속(www.cbscinema.com) ▶ 회원가입입 후 로그인 ▶ 원하는 영화 선택 ▶ '구매하기' 버튼 클릭하여 이용권 구매 ▶ 영화관람

이용권 선물 영화 이용권을 특정인에게 선물하거나 불특정 이용자를 위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3,000원

문의. CBS 시네마국 Tel. 02) 2650-7942(친구사이) E-mail. cbscinema@cbs.co.kr